

좌담회를 기획하며

2016년 12월호 보건복지포럼에서는 “이달의 초점”으로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한국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기획했다. 이실직고하자면 처음부터 의도된 기획은 아니었다. 12월호에 선정되어 있던 주제가 이리저리 어려운 이유로 원고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독자들도 인정하겠지만, “이 달의 초점”은 보건복지포럼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태 변화와 정책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고, 많은 관련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와 정책결정자에게 인기 높은 코너이다. 아는 교수님으로부터 “최신 트렌드를 따라잡기에는 이만한 코너가 없고 실제로 강의시간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그런 만큼 의도되었던 기획주제가 어그러지면서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편집위원회에서 조금 색다른 시도가 제안되었다. 보건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나누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면으로 구성하면 어떨겠느냐는 제안이었다. 몇 가지 이유에서 좌담회 기획이 급물살을 탔다. 첫째, 이 시점—기획은 10월 초에 이루어졌기에 현 상황과는 무관하다—에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숙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둘째, 다소 틀에 갇

힌 원고의 형식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좌담회 형식으로부터 때로 더 많은 함의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원고의 형식으로는 담기 어려운 폭넓고 시사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원고가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한다면, 좌담회는—물론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에 기반하기는 하지만—주관적 ‘의견’ 위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견(異見)은 ‘다름’을 의미할 뿐 ‘틀림’은 아니라는 데 모든 독자들도 공감해주리라 믿는다.

포럼이 발간되는 이 시점에서 좌담회 기획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자평한다. 좌장님들은 개입을 최소화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다. 전문가 분들은 미리 배포된 질문지에 준하여 본인의 의견을 가능한 가감없이 개진함으로써 역동적이고 풍부한 내용으로 좌담회를 채워주셨다. 이제 남은 것은 독자들의 몫이다.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과오나 이견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좌담회의 내용이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기획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